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충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음 8월 12일) 제16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의회 교육위, 교육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표명... 무주 등 5곳 폐지 위기

“농촌학교 살리기에 찬물 끼얹기”

특별교부금 지원 방침에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농촌 특성 고려 안해 정책 즉각 중단해야”

교육부의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까지 통폐합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폐지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농촌학교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런 교육부의 계획은 농촌살리기에 오래동안 노력해온 각계각층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폭거라고 판단한다. 농촌교육을 퇴행시키고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부에 분노하며 관련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 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규모 교육지원청 폐지 정책을 비난했다.

에 규정하고 있었을 뿐, 기구 설치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기준 적용으로 전북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교육지원청이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이는 전국 25개 대상 중 경북 8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형국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농촌지역은 지금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조손가정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수 감소만을 근거로 관련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자치는

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웠다면서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도의회 교육위는 “농촌지역은 지금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조손가정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수 감소만을 근거로 관련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자치는

주민함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법률 취지를 어기고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구태”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으로 볼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정책은 국민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소수리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를 정부 부처가 조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며 “지역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농촌지역교육지원청 폐지 및 통폐합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고민형 기자

노후 공동주택 14곳 ‘새옷 입기’

완산 삼천쌍용 3단지·덕진 팔복 삼화연립 등 전주시, 하반기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전주시는 지난 9일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열어 완산구 삼천쌍용 3단지 등 6개소와 덕진구 팔복 삼화연립 등 8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단지에는 올 연말까지 총 2억 원을 투입해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장 철거 후 조경식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이처럼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70%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가 그 어느 건축물보다 중요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단지 내 공동시설의 보수가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05년부터 자체 보수능력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지원부터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내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총 40억6000만 원을 들여 총 352개 단지의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 시민들의 호평 속에 지원신청 단지도 증가추세에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은 입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을 주고, 전주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냉동볶음밥’ 대만 첫 수출

‘전북 쌀로 만들었어요’

전북 생산 쌀을 원료로 가공한 냉동볶음밥 3.4톤이 대만으로의 첫 수출 길에 오른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에 위치한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하 한우물)은 지난 9일 대만 코스트코에서 판매할 냉동볶음밥 3.4톤의 출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김제 지역에서 전량 생산된 쌀을 생산·가공한 즉석 냉동 볶음밥으로, 제품명 ‘곤드레 나물밥’이 대만 코스트코 12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한우물에서는 까다로운 코스트코 입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대만 현지 매장에서 시식 행사를 개최하고 생산물 대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과정을 통해 코스트코 12개 매장에 입점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부터 야채·새우·콘드

레 볶음밥과 국밥 등 즉석 냉동 밥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한우물은 주원료인 쌀을 전량 도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사용하며 연간 4,000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김승구 농축수산물국장은 “연이은 종작과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쌀 산업을 도내 생산 쌀로 만든 쌀 가공제품이 수출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판로개척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쌀 수요 창출과 소비촉진을 위해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도내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입했으며 올해까지 한우물영농조합을 포함한 10개 업체를 선정해 쌀 가공제품의 생산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등 쌀 가공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고민형 기자

동네의원 주치의로 만성질환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시범사업 26일 개시... 1870개소 참가

오는 26일부터 동네의원 1870개소가 참여하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같이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양측은 사업 시행전까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방법, 환자등록, 세부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동네의원이 환자의 주치의 제도로 의사가 ▲월 1회 환자와 대면진료를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다음 대면진료까지 주 1회 이상 혈압·혈당정보 관찰 ▲월 2회 이내 전화상담 등을 병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의원당 환자수는 최대 100명까지 인정되며 복지부는 참여기관에 기존 진찰료와 별도로 행위별로 수가를 지원

한다. ▲계획수립 및 평가(9270원) ▲지속관찰·관리(1만520원) ▲전화 상담(7510원) 등이 책정됐다.

다만 시범사업기관 등록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각한 내과질환이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참여 환자는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 in’ 홈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중 환자의 별도 본인 부담은 없다. 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일부 환자층에 대해서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가 무상 대여·제공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위해 준비한 의료기기는 약 1만 개로, 자가 혈압·혈당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11월 중 추가 소요를 파악해 의료기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뉴스1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9월 23일~24일 양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 출연진

23일



메인: 자전거 타는 풍경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24일



메인: 최성수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다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문의: 063-288-9700(전주매일 문화사업국)